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고개를 떨구어 보면 해변의 모래알 만큼 부족함이 많은 가득한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을 볼 땐 그 큰 은하수에 한 점만큼한 아름다움이 있을거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거져주신바 되는 은혜를 통해 저희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를 믿는 이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받았음을 저희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하나님께선 작금의 한국을 사랑하시어, 많은 축복을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그 크신 복을 더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일 것이며 그 뒤에 숨겨진 뜻은 바로 애통한 북녘땅까지 복음화되는 계획까지 염두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이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 많은 형제 자매를 살리고 그 전도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대한민국인의 문을 다시 박차고 세계를 향해 나갈 바로 그때가 한국인이 만드는 새 세계 복음화의 꽃이 활짝 피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된다면 지금은 이를 위하여 돌 하나위에 다른 하나의 돌을 쌓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때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유럽 전역을 전도가 되었던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인을 통해 마지막 때에 땅끝 사역의 완성을 이루실 것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로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서 여기에 하늘의 꿈을 담은 메세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필자의 자란 온 배경과 거듭남의 경험

필자의 아버지의 출생은 황해도이고 황해도는 평양의 입구에 가까이 있었던 지리적인 이유로 황해북도은 유독 믿는자들이 많았으며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워 밀고 들어 왔을때 많은 믿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자기 마을을 유물사관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만든 민병대, 동키부대가 자생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문학교출신이었어서 동키부대 장교로 입관하셨고 다사로운 전투에 참가하시다가 그만 결국 오른쪽 되뇌근을 잃어버리는 심한 부상을 당하시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14후퇴때 남하하신 후에 피난민들이 정착할 수있는 남한에 피란민촌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구월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산전투에서 사망했다 소식을 듣고 딸 셋을 조부에게 맡겨놓고 젓먹이 자식(필자의 형)만 달랑 등에 얹고 죽은 남편의 시체를 찾겠다고 파리가 새까맣게 들어 붙은 시체하나 하나를 들쳐보며 찾아 내려온 곳이 바로 피란민들이 정착하는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 곳에서 두분의 운명적인 만남을 했던 겁니다. 전쟁의 발톱이 핏물고 지나간 대한민국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피난민만 모여 사는 판자촌엔 전쟁통에 남편은 부인들, 부인은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또 전쟁으로 신체일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이었으며 이른바 나머지 과반수는 동키부대에서 대원의 목숨을 잃었던 대원들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공동부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Figure 1) 전문선교사를 그림으로 표시 즉 100% 전문인, 100% 목회자라고 정의함

그 곳에서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대소사에 관여하셨으며, 글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송문제로 발을 동동 굴르고 있을때면 우리집은 인권 법률 로펌이였고 판자촌 사람들이라서 매일 부부쌈이 그치질 않아서

허구한날 눈땀이 밤땀이 된 아나네들에겐 우리집은 항상 그들이 추

운밤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이런 저런 대소의 일들로 동네사람들은 우리집을 자기집 문턱 들나들다시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추석때면 아버지는 그 당시엔 구하기 어렵던 가발을 가져 오셔서 아버지는 여장을, 성격이 괄괄했던 옆집 근수네 엄만 남장을 시켜서 마을 한 바퀴돌면서 서로 웃음도 나누고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였지만 필자가 봐도 주민들에게 뭐라도 베풀어야 했던 우리집 형편은 늘 녹녹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금의 서울 강남구만한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허가를 주었지만, 그걸 본인이 일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살겠끔 공평하게 각자에게 나누워주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일생을 바쳐서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에 마을 떠났다가 20년만에 다시 돌아온 아저씨에게도 아버지는 서랍속에서 그 집의 땅문서와 집문서를 주시면서 “걱정마라. 다 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될거야”란 말씀도 함께 전해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들이 방문할때면 어쭙지않은 얼굴로 꼭 그들의 손엔 고기 한근을 딸랑거리며 들고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몇십년이 지나가도 우린, 그 동네에 다 쏠어져가지만 더 이상 좋아질것 같지 않은 작은 판자집에서 살았습니다. 늘 부족했던 그때 융통성 없어 보였던 아버지가 서운도 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의지는 굳굳하셨으며, 고향을 잃고 타지에 온 모두가 잘 살게 하겠다는 철학은 변함이 없으셨고, 어찌든 그들의 노력이 허되지않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피난촌의 리더로서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해서 저희 삼남매는 그걸 목도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는 늘 저희같은 피난민들이 이렇게 라도 살겠끔 따듯하게 문을 열어준 남한 사람들에게 늘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지난 한참 후엔 피난민들이 원래 남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필자가 문고에서 처음 빠져들어 본것이 수호지이란 책이였고 그책에서 공동체의 개념을 처음 배웠고, 아버지에게 몸으로 보고 배운것이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Figure 2) 펠라공동체가 2만여명의 동공체를 오하이오주에 형성했다

필자가 공동체를 몸으로 배워 갔지만 믿는자가 아니였고 어린시절엔 그 판자촌엔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성탄절날 교회가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어야 사과봉투를 주었습니다. 필자가 어린때 뭐든 한번만 들으면 외었기 때문에 어른 옆에서 살

작 엿듣고 나가서 다 외운양 리허설해대고 선물보따릴 챙긴 후엔 초고속으로 빠져 나오는 것이 자랑인양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 첫날밤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조사 토시까지 따져 묻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거듭남의 깨달음의 시작이되었고 그 어렵다던 미국 정착을 하면서 거듭남의 경험이란 걸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피난민촌에 최초로 미국 유학한 자입니다. 미국 유학으로 이공학으로 최고의 학부를 마치고 미국 대형 화학 회사의 공장장으로 세계 4곳에 공장을 세웠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또 연구소장까지 거의 40년간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한 달도 안 돼 신학대학원을 수소문해서 들어 왔고,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나에게 부재했던 그 “영성”이란걸 키워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신앙생활과 전문선교사의 개념적 시발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어둑해지면 집에 들어오고, 수요일이면 수요일예배, 금요일이면 금요일예배, 일요일이면 주일예배로 늘 바빴습니다. 수십 년간 설교를 받아 적은 수십 권 대형노트가 있고, 몇 시간씩 드라이브해야 하는 귀찮음도 마다 않고 참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회사, 집,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선 교회도 개척 했었습니다. 이게 나의 미국 생활입니다. 회사를 옮겨도 나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 우선이었습



Figure 3) 새 사명자 미션, 전문선교사가 목회와 기업으로 선교함

니다. 그렇게 교회 다녀도 또 맘의 한구석에 늘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는 자로서 “세상과 목회의 교집합”을 이룰 수 있을까?란 자문을 늘 하곤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펠라 공동체¹도 알게 되었고 네덜란드 총리 겸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²의 한 손에 일, 다른 한 손의 성경이란 가르침도 깨달아 알게되었습니다. 해서 제대로 일해보고 싶었던 “전문 목회자³”를 꿈꾸던 터라 필자가 50 초반이 되어갈 때쯤 언더우드가 졸업했던 신학대학원에서 M. Div 졸업장까지 받았습니다.

¹ Pella공동체는 오하이오에 있고 두회사가 한교회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청교적인 기독교 공동체이다. 한 2만명이 한 도시, 펠라를 형성하고 있다

²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1905년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유명 신학자이다. 그는 세상일과 성경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³ 전문 목회자란 세상일(기업)과 목회의 교집합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생활에 접목시키는 또는 병행하는 목회자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그러던 어느날 “많은 선교사들이 10년 이내에 과반수가 은퇴한다”라는 크리스찬신문을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는다면, 필자의 계산법으로 2045년이면 2만여 명의 대부분의 선교사가 소멸됨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 정도로 기가 막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어느 한곳을 다시 열어 놓으실거란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있어 기도중이었는데 어찌 필자가 잃었던 길을 성령의 은혜로 찾은 것 같아서 여기에 기술코자 합니다.

막힌 선교사역을 찾는 실마리와 새로운 새사명자 선교 비전

필자 지금 젊은이들을 위한 미국 전문 특허 캠프, 와이콤(World Youth Creatives Mission)으로 이하 WYCM 또는 와이콤으로 표기)에 운영책임(COO)을 맡고 있습니다. 외국 젊은이들의 특허를 해주었는데 그중엔 선교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선교사의 수는 그리 감소한다⁴”고 하는데, 그들 상당수의 선교사 자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들어오고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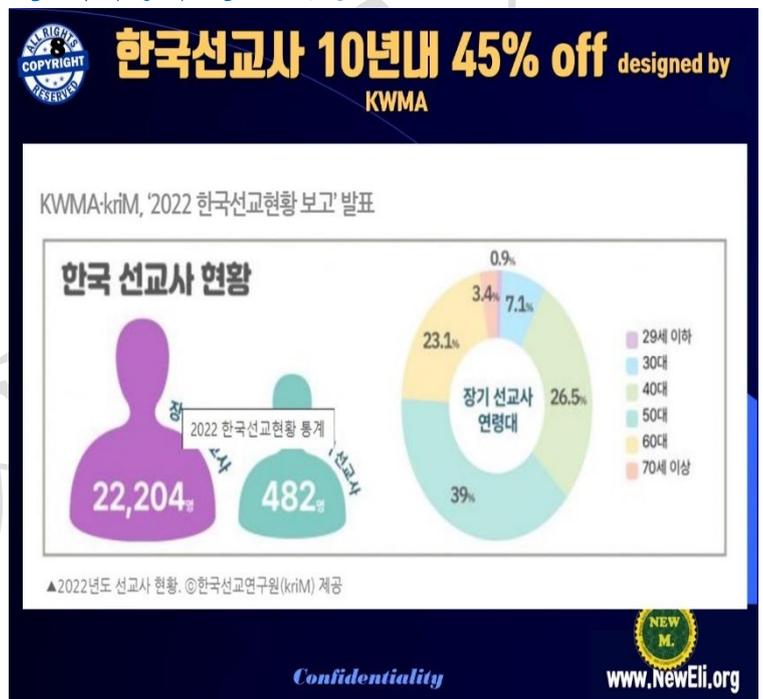


Figure 4) KWMA자료로수년후엔 많은 선교사가 소멸한다는 보도자료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니 그 숫자가 무려 연 4,000명쯤 되었습니다. 결국 선교사의 숫자는 줄어 드는 반면에 미국 유학 선교사의 자녀 숫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 선교하는 곳에서 생각해 본 것이, 만약 그리도 새 선교사들이 없어서 선교가 빨간등이라면, 그럼, 그 자녀들이 또는 새로운 새 사명자로 대를 잇게 하고, 그 선교지에 예전처럼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것이 어떤가?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선교사님의 자녀 교육문제에 관한 관심은 외지에서 사역을해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한국에 계신 부모와 같이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타지다 보니

⁴ 전신근. “세계기독교시대 한국 선교 의 현황과 돌파”, 제 4회 조용기 5.3.4. 월드미션 세미나 p24~p39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걱정은 더 심한 편입니다. 해서 자녀들을 대부분 그 나라의 국제학교에 입학 시킵니다.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학생은 대개 미국대학에 입학 해야합니다. 이것 때문에 펠라 공동체처럼 교회와 기업을 동시에 하는 사역을 처음으로 구체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투명하던 전문선교사⁵란 정의도 뚜렷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선교사란 기업(일)과 목회를 동시하는 사역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쪽 밑에 참고란을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교사의 자녀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그들은 현지에서 언어와 문화를 이미 습득하고 있고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가, 한국 부모 때문에 한국이 이미 능하고, 아버지 선교사의 기반으로 인원 고용이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인재를 키우려했다면 족히 2~3년이 걸려서 교육시켰다 할찌라도 아직도 현지 적응력은 검증할 수가 없는데이지만 이들은 필자의 관점에선 이미 다 준비된 인재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대학을 졸업해도 트럼프정부 이후에 미국은 이들에게 미국시민(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철저하게 미국내의 일자리 후보자로선 박해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선 미국 유명대학 박사 학위도 아닌 미국 대학 졸업장 하나 들고 한국에 들고 와봐야 기대했던 대접을 받긴 이미 너무 많은 인적자원이 남아 돌아 가도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젊은이도 한국에서 취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은 막혀있고 한국에선 녹록치 않고 해서 아버지가 사역한 사역지로 돌아 간다 할찌라도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선교사가 수십년 해외사역을 하셨다 할찌라도 부모의 선교지에선 경제적 기반으로 시작한 사역이 아니여서 거기서도 변변한 선택 또한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들은 고등 청년 백수로 한국정부의 기초수급대상자밖에 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 실정을 아는 필자는 강남의 어느 카페나 음식점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젊은들의 대화중에 영어가 들려 올때가 있습니다. 그뻘 한국의 어학수준이 많이 향상했구나가 아닌 그 반대입니다. 필자의 감정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것이 바로 필자가 꿈꾸는 “새 사명자 미션”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기업과 목회를 운영할 수 있는 새 사명자로 CEO, 즉 전문사역자로 만들고,

⁵ 전문선교사란 세상일(기업)과 목회의 교집합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생활에 접목시키는 또는 병행하는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서 하시는 선교사, 외래 전문선교사와 자국내에서 하시는 선교사, 자국 전문선교사로 구분한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최종적으로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향력인 있는 글로벌 리더로 육성해 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 미션의 대상은 초기엔 선교사의 자녀였지만, 선교지로 나가겠다는 신학생들도, 또 도전 받은 젊은이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가는 걸 꺼려서 선교사의 수가 줄고 있는 이때에 땅끝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젊은이를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으로 이들, 새사명자들은 제3국에서 돈키공동체 - 성격상 여기선 펠라 공동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돈키 공동체라 칭함 - 를 만들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이 공동체 멤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순회 업무를 할 것이며 전세계를 돌다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체류기간 동안엔 미국 시민권도 지원해 줄것입니다. 저흰 미국 창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즉 세상을 끌고 가는 젊은 리더는 결국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시민권자로서 전세계를 누비게 될 것이기에 여기서 스티브 잡스, 빌 게이트, 또는 마이클 저커버만큼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될수 있는 가능성까지 크게 열어 놓고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젊은이들이 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돈키공동체는 외국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며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북한문을 여는 순간, 사전에 정해졌던 북한의 구역로 해외 복제 공동체가 들어 갈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애통했던 자들 중심으로 풀뿌리 사역을 북한 전역에 걸쳐서 할 것이며, 빠른 시간에 복음화를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북한 복음사역에 주도 세력이 될 것임이 틀림이없습니다.

아마 이 사역은 시간과 물질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작금에 정부가 통일에 대한 통일 충당금조차 비축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선 기독교 전파에 필요 조건이 될 것이고 필히 이루기 위해서라도 믿는자들이 미리 미리기도하며 준비 해야할 것이 충분조건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화가 완결된 후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북한에서 훈련 받은 자를 다시 선출하여 훈련할 것입니다. 그후엔 이미 발판으로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해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복음화를 완수하기 위해서 역사적 주역으로 다시 세계무대로 나설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충전이 가능한 특수 훈련 받은 믿음의 용병이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땅 끝 사역을 쉬지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그들의 사역은 나선적인 흔적(Helically Dynamic Circle)으로 기독교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하자면 해외기지로 시작한 선교는 국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내로, 그리고 국내에선 다시 성숙한 선교는 다시 전세계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결국 그 순환 사이클을 한국을 중심으로한 나선형 선교를 형성할 것입니다.

목회사명의 관점에서 세상은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가? 새로운 선교형태란?

세상은 세계 무역화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자유 시장 경제"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물가와 자원 배분이 결정되는 경제 모델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며, 소비자 선택과 생산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을 추구합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기에 이르는 기간은 글로벌 경제에서 특히 활발한 시기로 평가되고, 이 기간 동안 정보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화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성장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류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경제 활동이 형성되었습니다.



Figure 5) 전세계 새 사명자운동으로 확산되는 꿈을 표시함

이런 활발한 경제 활동의 시기는 지역, 산업,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지만 최근 몇 십 년 동안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제 확장이 현대 시장 경제를 매우 활발한 시기에 제대로 때를 맞추어 발전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이걸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의 활발성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과거 몇 십 년 동안,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 혁명으로 세상은 이미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렇게 변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선교의 니즈(Nees)도 토마스선교사⁶가 우리나라에 들어 왔을때와 많이 달라져 있음도 인정해야합니다.

하여 21세기 아프리카 선교는 더이상 식민나라의 아프리카 선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든지 전깃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비록 작은 용량이지만 마을에 몇몇 선택된 전등불 밑에서 학생들은 늦공부 까지 하고, 낮이면 아프리카 정글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누빉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선교를 가는 젊은이들이 사지로만 간다는 생각부터 바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삶의 변화가 간절한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로 이미 바꿨다는 말이 됩니다. 즉 환경 (Context)가 바뀌었는데 진리(Text)을 전달하려면 도구(Tool)쯤은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도구(Tool)가 한때 바울 시대엔 천막 수선일 수도 있었다면 시간이 지난 지금은 목회와 기업으로 세상에 이익을 주는 전문인, 즉 전문 선교사 (Professional Missionary)란 제도 (Tool)의 출현이 이 세상에 필히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새시대가 요구하는 새스타일의 선교는? 바로 종교수출이 답이다.

말하자면, 구식으로 선교살 오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 그럼 어디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란 질문이 생깁니다. 어려운 질문이나 대답은 쉽습니다. 한국보다 차등한 나라의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적절한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이 차등국 선교지라면 조



Figure 6) 전문선교사 지원 단체들을 표시함

⁶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한국교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50인’(KIATS /한국고등신학연구원/김재현 지음)에 따르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는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다.

출처 : 고신뉴스 KNC(<http://www.kosinnews.com>)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용기 목사의 불광동 천막에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그 기간에 일어났던 업적이 중요한 증거 자료(Reference)이며, 그 업적이 바로 선교의 밑거름이 됩니다. 문화 수출이란 게 존재했었다면 작금의 시대 종교 수출을 해야 할 지점입니다. 영산⁷의 동일한 DNA 신학으로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습니다.

영산이 맨 처음 시작했던 그만한 곳 -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그곳 즉 풀뿌리 깊이 박혀 자랄수 있는 곳 - 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영산의 다음 왜래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그 뿌리가 내렸다면 그 후 30년 뒤엔 70만의 대형교회가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여의도만한 교회가 방방곡곡 세워지는 간단한 셈법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로 성공한 대형교회가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대형 교회의 파우워를 사용해서 키운 목회자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내서 신앙의 말초 신경계를 대형 교회 중심으로 형성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성도 숫자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형이 됨은 소형을 위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하고, 소형은 대형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릴 통해 연속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사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사명자란 체제(System)를 통해서 신앙의 유기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체제라도 그 제도 자체(System)엔 생명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솟았던 좋은 희망도 다음의 대답이 궁해지시다면 금세 가라앉게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⁸ 처럼 꼼작않고 앉아서 체리픽킹(Cherry Picking)⁹ 을 하는 부류들이 부단히 임상¹⁰ 하여 찾아내야하는 결과물로 겨우 이해가 될까 말까한 위르겐 모르만의 희망신학¹¹ (Theology of Hope)을 가감없이 그것도 파격적으로 받아 줄 수 있겠느냐? 반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갈일 하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교단은 몇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선두에 앞장설 신학적 배경은 영산이란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케

⁷ 조용기 목사의 호, 영산이름을 따서 영산 순복음 신학원이 80년대 중반에 발족한 바가 있다

⁸ 정목사는 정XX 목사로서 조용기 목사의 이단성의 시비로 수없는 칼럼과 책을 썼으나 결국 그는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사라지는 인물이된다. 자신 뚜렷한 사역은하나도 없이 그 많은 시간을 남의 시비로 시간을 보낸 대표적인 불쌍한 인물이라 해석된다.

⁹ 체리피킹; 부분만 이해하고 전체를 이해 못하는 국부적 이해로 교리논쟁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논리의 병폐이다

¹⁰ 책상에서 하는 공론이 아니고 책상 밖에서 즉 세상에서 움직이면서 엄청난 실행 즉 trial & error방법으로 새발견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학적 논술기법이다. 과학에서 이런 논리 기법으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고 많은 발견을 공증한다

¹¹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저서 '희망의 원리'를 통해 사회 윤리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다가 그 후 희망은 1964년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Theology of Hope) 출판을 기점으로 기독교 신학의 중심 이슈로 부상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하는 필자 혼자만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알고 있는 영산이 있어야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일어날 이런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igure 7) 영산의 절대 희망이 새사명비전에 주는 영향

필자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산의 업적이 그리 세계적으로 돋보여도 신학적 체계를 갖춘 여의도 순복음 신학자들의 뒷배가 턱없이 부족하여, 늘 종교철학은 했다던 도올이나, 위에 표기했던 몇몇 입심 있는 목사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필자 영산의 DNA 세미나¹²를 보고 나서 숨

도릴 새 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맙게도 이렇게 학문의 영역을 확장해 놓았다니! 이거 필자처럼 맨땅에 헤딩(Heading)하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공불 마치고 미국 사회에 최고의 중심부에도 진출한 사람으로서, 또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개척을 하겠다던 전문선교사를 운운하던 필자는 물 만난 물고기인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물을 제때 만난.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때 자원 부족을 마음 풍요부터 해결하자는 영산은 새 마음 운동¹³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름이 변모했다지만 이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것은 물이 부족할 때 반석을 치며 화를 내는 것도 아니며, 또는 아예 못하겠다며 자지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 영산의 4차원, 즉 영적으로 - 말(다시말해 말, 생각, 믿음, 꿈)로- 터져 나오게 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난 잘될 거야” “난 참 풍족해”라고 되새기면 잘된다는 일본의 거부, 사이토 히토리¹⁴도 알고 있는 다잡는 마음법인데 영산신학은 그정도를 훌쩍 뛰어 넘어서 거기에 내려 주실 하나님의 믿음과 또 여기에 함께 내재하시는 성령까지

¹² 배현성교수의 저

¹³ 배현성. “영산신학의 DNA세미나”

¹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의 재부호이다. 그의 저서로 “1%의 부자되는 법”에서 “난 풍요롭다.” “난 참 행복하다.” “난 못할 것이 없으니 해보자”라면 자신의 마음 잡기로 10,000법칙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추가한 영산의 새마음법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없는, 급진적이면서도 아주 실전적인 신학입니다. 이걸 적용한다면 딱 지금으로부터 30~50년 차등 된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해도 지금도 제대로 작동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목회와 기업을 동시에 실현하고픈 새 시대에 새 사명을 가진 전문 선교사가 거듭만 난다면 다시 말하겠지만 이걸 이루는 마지막은 아주 쉽습니다. 한국보다 조금 차등한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한국교회가 이미 실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성장을 운운하기만 해도 따지지 않고 믿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믿는 자만 모아도 열두 개 이상의 대형 교회, 그것도 70만정도의 성도를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만한 교회가 여기 저기에 세워질 것임 분명합니다. 해서 필자의 캐치프레이즈가” 되는걸 왜 안해?”입니다.

과거의 선교역사에서 본 선교의 병폐과 그 치료방법은?

그런데 실제 역사를 돌아보면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라틴 아메리카 등의 지역에 진입하여 현지 문화, 사회, 정치에 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문화적인 충돌, 이해관계 부족,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결과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의 안정성과 문화적 동요가 생겨났고, 실례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유럽의 식민지 지배와 선교사의 도입으로 문화적 충돌과 이해관계 부족이 발생한 많은 실패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의 다양한 이슬람 국가들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유럽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정치적인 항쟁과, 서투른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입으로 문화적 충돌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대책 없는 선교 도입, 현지에 맞지 않는 선교전략, 또는 현실성 없는 선교 측정치(Vague Parameters in Degree of Missionary)등은 종종 현지 문화와 신앙, 전통과 충돌하며, 이에 따라 혼란과 불안이 초래했고, 더러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성없는 선교사의 숫자만 부풀리는 양떼기공세로는 교계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인 가치만 더 충돌하며 선교지나 피선교지에서 선교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고, 이는 선교본질의 투명성을 훼손하며 신앙적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국가는 자신의 전통과 신념을 지키려는 욕구와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하려는 압박 사이에서 갈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등을 겪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선교국의 존폐의 위기감으로 예상치 못하는 혼란과 파탄 그리고 불신이 아직까지 계속 초래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 속에 없었어야 했던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파송하는 것이 승산이 아님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 (Needs)한 것을 제공하는 선교

Figure 8) Target 2030란 한국 세계교협의회 (KWMA)에서 2030년까지 선교사 파송 목표를 10만 선교사로 잡았지만 현추세론 가능성이 없다

로 바뀌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젊은 선

교자들도 이와같이 그들의 필요(Needs)을 채워주질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요한복음21:6에도 밤새도록 허탕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하십니다. 그후 베드로로 하여금 153마리의 물고기로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히게 하시후엔 잡은 물고기로 조반을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귀절이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그것의 의미는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물꼬를 튼 다음엔 자국민을 키워 선교전선에 세우는 한 방법을 가르키시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새 사명자 미션을 이 실마리를 해결하는 방향을 이 가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선교, 은혜받는 자를 거둘 수 있는 자리에서의 구원의 선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들림과 날렵을 같이 하는 공훈의 선교, 그것이 바로 그들과 생을 같이 하는 리더형 선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선교는 이런 새 물결인 전문선교사라야 이렇게 꼬이듯 꼬인 문호를 개방시킬 수 있으며, 또 선교의 잃어버린 실옥길(Silk Road)을 되찾을 수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선교의 본질을 재발견 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문호를 열어줬더니 아편무역으로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있던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어 오겠다고 누구나 두손을 들고 환영할거란 생각은 너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무 순진무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타겟이 이슬람이나 공산권에 있다면 더욱 더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국가가 문을 열어 주는 일은 단순 선교 직업군으로 힘듭니다. 아니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치지도 말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 선교라면, 그 히든카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쪽의 히든 카드도 바로 전문 선교사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선교사자녀들이 미국 대학을 마친후 다시 이슬람국가에 들어가서 이슬람문화권 직장을 구하는 한 두사례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지배구조하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지만 저희는 우리의 자녀가 전문 사역자가 되고 고용인이 아니라 전문사역자로서 그들의 문화권 들어가서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고, 트레이닝을 시켜면서 그들의 삶의 터에서 선교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가 바로 CEO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일상의 삶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결국엔 그들이 구원에 이를때까지 케어링(Caring)해 주는 겁니다. 이쯤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자문해야합니다. 왜?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인지? 기술이 모자서인가? 아님 돈이 부족해서 인가? 둘다 아니라고 - 필자는 확실히 보입니다만 그 해결책이 - 대답되었던다면 그럼 그건 사고의 전환하지 못하여 스스로 만든 병목현상입니다. 아직도 되는걸 앎하고 있으면서 꾸념만 하고 있다면 우리 DNA에 숨어있는 노예 근성인것입니다. 일어나야합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은 줄고 있습니다. 부모선교사님들은 은퇴후 귀국해선 해외나가 얻는 후유증으로 몸은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인 기반이 없던 선교지에서 돌아온 분들은 원래 없는 혜택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녹록지 못해서 기도원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본 젊은이들이 이 사역에 뛰어들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 젊은이의 숫자 적어서가 아니라 이런 병폐때문에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고를 전환해야하고, 청년들이 새로운 새 사명자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수차례의 젊은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소개코져합니다. 물론 전문 선교가 될 젊은이의 입장에서라도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인생을 바칠만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기성세대들은 MZ세대들이 “자신만 챙기고, 옛 선배처럼 충성이란게 없어진 지 오래다”라고 합니다. 마치 호된 시집살이 한 노모가 며느리에게 대 물림하는 듯하고, 꼭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싫은 걸 했다고 평생 불평하다가 꼭 자기 딸이 나오면 그 못된걸 대 물림합니다. 사역은 그러면 않됩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니다. “MZ세대 자신들은 자길 돌아봐도 흥도 없지만 뭘 또렷한 게 할 일이 없는…… 예상도 못 했던 장수하는 노년층의 증가로 앞이 짝 막혀버린 느낌…… 더욱이 취업도 안 되고, 또 청년 한 사람은 다수의 시니어를 충당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등등으로 참으로 형편없어 보인다”라고들 합니다.

다른 얘기로 이 논지를 도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활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했는데, 그 비싼 공사비를 투자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했더니 사람들은 불타는 화산에 타 죽을까봐 놀러 오는 사람은 아예 없었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공사에 엄청난 자본과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점점 시들시들해졌고 마지막엔 폐사하게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 이회사가 푸니쿨리 푸니쿨라¹⁵(funiculi funicula)란 노렐 출시했습니다. 결과는 곧두박질치던 비즈니스의 손익분기점의 방향이 확~ 틀면서 치솟아 올랐고 그결과로 엄청난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아주 기사회생했고 이회사는 위기를 기회를 삼은 아주 좋은 예를 남겼습니다.

음은 아주 활달하고 4박자로 경쾌하다 못해, 듣고만 있어도 몸이 우쭐 우쭐거리게 만듭니다. 그 가사를 보면 “불이나는 것 두려워만하면 너만 손해지!”란 가사로 시작으로 그 높은데 올라가면, 너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접경에 사는 멋진 국가들은 물론 저기 지중해 말단 스페인까지 너희 눈 아래로 훤히 내려다 볼 수있지! - 사실 볼 수 없는 거리임 - 라며 무서운 공포를 스틸로 바꿔줍니다. 스틸과 환희는 같은 에너지 레벨입니다. 노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푸니쿨리” “푸니쿨라”란 후렴부를 반복하다가 “이 길이 천국길이다”로 끝이 납니다. 무서움에 대상에서 즐거운 놀이 대상을 넘어서 어드벤처¹⁶의 대상으로, 그것도 자연의 풍광이 엄청나게 가득찬, 롤로코스트로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누구도 살아서 가보지 못한 천국을 운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걸 인문학에선 사고의 전환(Paradigm Shift of Thought)이라고 합니다. 이 노랜 음만 험밍(Humming)해도 금발 알아챌만큼 유명한 곡이 되었지만 이 노래가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 해서 비즈니스를 살렸단 사실을 아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예문에서 잘 기억해 두실것이 “너만 손해지”입니다.

¹⁵ 이탈리아리 배수비오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쓴 곡이다

¹⁶ 어드벤처는 adventure로 모험을 말함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다시 선교로 돌아 가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시대, 한국선교의 현황과 돌파”¹⁷에서 우린 지금 새로운 선교모델의 절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너만 손해인 선포 어떻게 제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젊은피의 수혈이 더이상 없어졌고 더불어 선교도 벽에 딱 막힌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젊은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푸니클리 푸니쿨라처럼 젊은이가 가야만 하는 선교로 바꿀수 있는 사고전환이 있을까요?. 참말로 선교에 이러 사고전환이란 것이 말이라도 쉽지는 않게 보이지만 너만 손해란 방향으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¹⁷ “세계 기독교시대 한국 선교의 현황과 돌파”는 한국 세계교협의회 (KWMA)의 대외협력실장, 전신근 목사의 발제로 제4회 조용기 5.3.4. 월드미션 세미나에 기재되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필자가 선두에 얘기 했던 전문선교사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설득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주 신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야 한다는데, 안타깝게 차세대의 형편에선 이런 이상적 요구는 부질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젊은 세대를 배제한 선교는 옵션인가?입니다. 답은 '아니다'이며 물론 선교란 자체가 차세대 없는 선교는 더 이상의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해서 필자는 그걸 나쁘다 좋다로 비하하기 앞서 그들의 니즈(Needs)를 채워줄 수 있는가?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자는 그들이 동시대에 다른 삶을 선택한 젊은이들과 비겨서 결코 뒤지 않고, 장래가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타진해 보았습니다. 전문선교인들로 더 흥분될 수 있도록 이 모두들 즉 전문선교사들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래 글로벌 네트워킹(Global Networking)으로 연결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어느 기업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세상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볼때 목회자라해서 기업 운영을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거꾸로 기업가여서 또 목회를 못할 일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목회 형태가 되는 것인데 만약 이걸 해낼 수만 있다면 크리스천 엘리트가 세상에 주는 영향과 사회가 그들을 향한 인정함은 기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 유명 엘리트기업을 다니는 자와 비교해도 더 없는 영광스런 포지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이것

Figure9) 미래 선교사는 전문선교사로 교체되어야 함

을 강하게 믿는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은 고학력 - 일례로 수명교회는 1,000명의 재적 인원 중에 300명이 박사학위자로 교인의 30% 이상이 고급인력이다¹⁸라고 합니다 - 과 생명의 연장 - 120세를 넘어 150세까지의 사람의 수명(Lifespan) - 이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점이 있는 젊은 세대에 구식으로 “충성해라” 라며 요구한다면 한참 뒤쳐진 설득이 될것이고 결국 저희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¹⁸ 수명 교회 담임 목사인 심 수명교수께서 영산순복음 2023년 2학기 심리상담 수업중에 Proven된 상황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해서 그 젊은세대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그들의 긴 인생에 더 큰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때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으로 얻어지는 참삶의 의미를 터득토록해야함은 물론이겠지만 더 흥미로운것은 사회적으로 볼때 사업체의 CEO로서 자신의 성장도 더 발휘되고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윈-윈의 논점만이 젊은이들을 설득하는 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그들의 앞길이 100년이 넘게 축 쳐지고 그저 한심하게 길기만 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기업)과 복음(말씀)의 팽팽한 긴장(Tension)사이에서 탁력있는 삶을 남들 보다 오래 영유할 수 있음도 설득해야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의미가 되어야합니다. 그럼 젊은이는 새 사명자로 지명됨이 곧 글로벌 지도자가 되는 지름길이기에 젊은이들에겐 흥분되는 일이고, 세상은 제대로 된 리더들을 얻어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희망 신학¹⁹이 한국 땅에서 보여 졌듯이 우리는 이걸 세계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명자는 그들의 선교지에 물이 갈급하니, 물이 터져 나오게 할

것이고, 영의 젓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만드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더우기 이런 일들은 이 자유세계시장 경제에 그들이 미국과 추가로 한국의 네트워크만 있어도 성공할 환경조성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움기는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들이라면 이미 이루어진거나 진배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야 말로 “되는걸 왜 안해”입니다. 언급했듯이 이리 진화한다면, 크리스찬 엘리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차대한 시대적 흐름에 이걸 안해? 너만 그럼 너만 손해가 되는것입니다.



Figure 10) 선교가 교회의 주요활동이어야한다란 캐취프리즈

교회의 제도는 웃과 같다

교회 제도란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피크(Peak)를 걸쳐서 생명

¹⁹ 영산 조용기 목사가 주장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강조하였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 다하면 폐기됩니다. 마치 옷을 입다가 철이 바뀌면 다른 옷으로 바뀌었고, 철 지난 옷은 옷장에 들어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사양의 제도, 없어진 제도를 대체하는 다음제도, 꾸준히 진화하는 새 제도입니다. 일례로 신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때 쯤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만인의 제사장란 교리안에서 평신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교리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도들이 높은 신학 수준에, 세상을 헤쳐나온 경험까지 차고 넘치며, 손상된 신체 부분을 줄기세포로 교체하면서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목회하겠다고 키워드는 “가치와 의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고리를 엮어 맨 “삶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자신의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면, 이들, 즉 뉴엠(New M.), 새사명자들을 저지할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들은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진정으로 마지막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전문 사역자”일 겁니다. 하여 이 제도를 여기선 진화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는 이렇게 유능한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지구가 불(핵)²⁰로 심판을 받을때 마지막 버튼을 누른 자가 복음을 아는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그의 고민 속에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된 자에 의해 - 예로 음악 축제장에서의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 911테러로 무고한 시민의 죽음 등등 - 세상이 뒤집히는 사건들을 예방 차원에서 믿는자가 막을 것이고, 혹여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악의 소굴에 빠진다는 걱정보단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이 우리 믿는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믿는 자로서 이 일을 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그걸 깨닫는 자의 삶은 매시간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젊은이들이 이해하고 따라 왔다면, 젊은이들이 뉴엠의 새 사명자로 나아가 도전하기에 세상은 너무 넓고 할 일은 은혜롭게 널려있는 것입니다.

뉴엠, 새 사명자는 실제로 어떻게 가고 있나?

뉴엠, 새 사명자운동을 실제로 시작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도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여기서 미래에 어떻게 일어

²⁰ 참고로 필잔 불심판전까지 지구는 믿음있는 자에 손에 있어야 된다고 믿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날 것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뉴엠, 새 사명자운동 (New Elisa's World Movement) 또는 미션(New Elisa's World Mission)의 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례로 개인도 할 수 있고, 교회 독단으로, 또는 교회가 합친 교단에서, 기독교 신학교 및 연구소에서도 할 수 있고 비영임의단체에서도 기업에서까지 할 수 포맷(Format)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준비 된자를 보내면 되고, 아니면 따로 특별히 준비된 자를 보내도 됩니다. 저의 사촌형처럼 이복에 형제에게 뭐라도 남기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새처럼 오래 살아서 환갑잔치가 없어졌다 하나 여전히 칠순, 팔순일때 잔치 비용으로 해외에 교회 세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새 사명자 미션은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람을 찾게 했던 착한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 세상에 선 쌓아던 아름다운 업적만 남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돌위에 돌 하나쌓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해서 이런 일도 뉴엠, 새사명자의 일부분 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웠던 분들중에 가장 오래동안 남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사역지에서는 이분들의 이름을 오랜 간직함이 명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자비량 교회로 자가 충전이 가능하기에 오랜 시간을 지구상에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실례로 WYCM²¹ 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스텝들의 동의를 얻어 뉴엠, 새 사명자운동을 위하여 지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기획으로 근로 생산기지를 선호하고 제품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전량을 수출하는 구조로 노동력과 실업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품종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했던 전문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 지역을 순환하면서 기업 운영/교회사역을 하고, 기업은 선교지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영속적으로 보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은 WYCM에서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자체 충전 해야 할 것이며, 재림까지 쉼 없이 가동하는 유일한 선교그룹이 될 것입니다.

해서 계속되어질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엘리사해서 NewEli.org란 웹을 만들어졌고 이런 청사진을 도전받는 젊은이에게 땅끝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핵심신학은 절대 희망론으로 포오스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희망이

²¹ WYCM는 미국 특허 전문 회사로 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만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미국 특허를 만들어주는 전문 기관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타지에서 제대로 론칭(Launching)²² 되려면, 이런 뉴엠, 새사명자미션(영어론 New Elisha's World Mission라 칭함)이 한국 기존 목회자의 이해를 받고 그에 상응한 협조를 받는냐? 에 달려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의 호응에 의해서 전문선교사의 사역의 앞날도 결정되고, 또 마지막까지 선교해보겠단 이런 움직임의 여부에 따라 한국 교회의 운명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희망 신학이 뉴엠, 새사명자 미션은 절대희망 신학으로 도전해 갈 것이고, 대한민국 GDP 750불에서 35,000불까지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다시 타민속에게도 다시 불을 주는 영의 오케스트라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고개를 뛰어 넘어가듯이 아리랑을 건너서 세상을 바꿔야한다

필자가 꺾끄럽게 생각하던 민요가 아리랑입니다. 날 버리고 가는 녀석 정도면 쫓아가서 귀퉁배기를 후려쳐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임 떠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웬~ 발병만 나길 고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민요를 듣는 민중의 맘은 아리고 아리다고들 합니다. 총이 남무하던 나라에서 살다 온 필자는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가슴이 저려온다고 해야 할지? 아닌 총 들고 설쳐대는 국민들처럼 저주의 말이라도 몇마디 쏟아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영산신학은 요렇게 짜 짠 반하게 있을 이때 한국인들의 영을 오케스트라했으며, 군사독재인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폐병으로 죽어가다 살아났었기에 거칠 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영산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지만 말고, 쭈그려고 있지만 말고, 그리고 못 한다 말고 이젠 제발 더 이상 짜 짠 반하게 있지 말고…… “된다”라 생각을 해보고, 아니 그 생각만 말도 하고, 이젠 말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외쳐보고, 당신도 절대 희망을 품어도 되는 귀한 존재이고, 당신이 세상을 설계해도 아브라함만 그리 한게 아니고 당신을 통해서도 이루신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인행세 좀 하라”라 설교하면서 생각을 바꾸라 하고, 꿈을 꾸라 하며, 믿음을 가지라 하고 또 말의 메시지가 던져주던 영적 지도자였다. 영산은 모세처럼 노예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한국인을

²²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출애굽기 시킨 사람이고 영산의 절대 희망과 영산의 삶의자리가 같길 잃은 민초에게
젓과 꿀이 흐른 가나안땅이란 새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것도 없던 국민들이 새마을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이 운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영산은 그 동
시대에 처음으로 영적 운동 - 즉 새 영운동이다. -을 시도했던 분입니다. 그때 잠자는
민초를 깨워서 뭐라도 해야 했던 때였으며, 마침 중화학으로 나라가 들썩거릴 바로 그
때 영산이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가 믿은 성도들을 들석거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결
과 오늘 70만의 성도되는 순복음의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의 여의
도를 언급했다면 많은 의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그러나 지금
참예한 안목으로 시간을 뒤로 천천히 지나간 일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여
의도 순복음의 부흥은 당연히 일어날 일인지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곳,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루아침에 똑딱하고 생긴 기적이 아님을 우린 압니다. 결코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업적이라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
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했던 영산의 영성이 너무 맞는 일이고, 이것은 시대의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Event)였습니다.

복음주의와 오순절주의의 차이와 새 사명자의 방향은?

안타깝게 복음주의자들은 오순절을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주의
자들 중에도 성령 충만에만 필이 꽂혀있고 영산의 성령세례를 또 간과합니다. 많은 사
람들이 한국에서 영의 오케스트라 한때 어려웠던 나랄 살린 걸 모르고 있습니다. 2천
년 전 베드로와 120의 성도들이 불세례가 있던 마가의 다락방 있었다면 영산의 불광
동 천막에서 이걸 다시 재현했던 겁니다. 이해들 돕기위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두 해
전이야기를 삽입하여 이해를 도울까합니다.

BC 48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왕조는 그리이스를 정복하려 대군을 보낸 사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병력은 그리스병력에 두배이상의 병력을 가진 해전이었습니다.
이 살라미스해전²³에 테미스토클레스(Themistocles)장군²⁴에 의해서 그리스 폴리스

²³ BC 480년 9월 아테나이 인근 살라미스섬과 육지사이 해협에서 일어난 아케메네스 왕조가 통치하던 페르시아제국과 그리이스
도시국가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해전이다

²⁴ 테메스토클레스(BC524~BC459) 아테네 정치가, 군인,살라미스해전의 승리자인 명장,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인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그리스 아테네를 거의 폐망에서 살려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니크(Unique)하고 단 한 번뿐인 전쟁으로 페르시아 대왕은 다신 침략을 못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백여 년이 지나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BC 480년에도 도망만 칠 줄 아는 무능한 연합군 사령관, 예우리비아데서 밑에서 똑똑한 테미스토클레스장군이 치른 슬라미스해전이 있었듯이, AD1597년에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나랄 버리고 도망만 치던 선조 밑에서 그래도 “죽으려 하면 살고, 살겠다면 죽는다”는 훈령으로 해전을 치른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영웅들입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도락질하고 아이와 여자를 죽이고 겁탈하는데 권력을 잡은 자는 무능해서 아무 것도 못할 때 이 두 영웅은 동일하게 민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랄 구하는 업적을 설명할 때 테미스클레스장군이 더 능력 있고 무고한 백성을 구제했던 그의 업적이 더 높고, 그의 가치가 더 높다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상황에 다른 영웅일 뿐입니다. 실제 이 두 해전은 동일하게 좁은 해협을 빠른 물살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테미스클레스장군은 378척으로 600척을 대항해서 적의 배, 200척을 수장시켰고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330척을 상대해서 적의 배, 131척을 물속으로 수장시켰습니다. 참으로 역사에 이런 기록을 찾아보기 힘든 어마무시한 해전이었습니다. 두 해전은 유니크(Unique)하고 BS 480년과 AD 1597년에 그리스에서 또 한국에서 각각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학에선 이렇게 동일한 업적 또는 결과를 낳은 것에 다음같이 표기합니다. Φ 테미스클레스장군 = (무능한 상사밑에서 나랄 구한 해전) in BC 480 와 Φ 이순신 장군 = (무능한 상사밑에서 나랄 구한 해전) in AD 1597 로 표시합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여, 베드로 때 성령세례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다시 영산 때 성령세례가 불광동 천막에 임했다를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세례는 $\alpha_{\text{베드로}} = (\text{성령세례})_{\text{at}}$ 마가의 다락방 으로 표시되고 불광동 천막의 성령세례는 $\alpha_{\text{영산}} = (\text{성령세례})_{\text{at}}$ 불광동 천막 으로 표시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세례엔 강풍과 함께 불이 혀처럼 갈라졌는데 그렇게 갈라진 현상은 2천 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그때를 성경은 오순절이라 기록되어 있고 성령세례를 처음 경험한 날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오순절은 단 한 번뿐이라는 걸 과학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에서도 인정합니다. 해서 오리지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 성령출현이됩니다. 필자는 과학한 사람입니다. 과학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과학에서 보는 단 한 번 뿐이란 관점은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타고 있는 불끝의 현상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 그와 동일한 불꽃은 다시 재현할 수도 없는 바로 마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일한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신 그런 불꽃의 형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초점은 불끝이 아니고 불 속입니다. 그 불속에서 무엇이 나타났으며,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 능력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장군이 이용했던 좁은 협곡을 어찌 발견되는가? 보단 백성을 불쌍히보고 어떻게 나랏 구했는가? 관점입니다. 현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불끝만 계속만 보고 있다면 그저 답답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불의 밖에서가 아니라 사실 불 안에서 성령이 어찌 일어났고, 무슨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일이 베드로때나, 영산때나 동일하게 일어났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세례인 것입니다. 이걸 불의 혀 모양만 고집하면서 동일하지 않다 한다면, 예수의 사역의 전체를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수학적 표현에서도 X란 방정식이 있고 X에서 유사한 X가 나올 때 프라임(')을 붙여 X'라 합니다. 즉 X'라 쓰고 읽을 땐 “프라임 엑스”라 발음합니다. 또 다음의 유사한 X가 나올 때면 X'를 기재하고, 읽을 때 “더블 프라임 엑스”라 하며, 그다음은 X'으로 “트리플프라임 엑스”라고 정의합니다. 일어난 형상을 이렇게 정의했을때 반복되는 현상을 표기하는 수학의 정석입니다. 해서 이런 식을 적용하면 영산이 이룬 치유의 사역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례를 받고 일으켰던 기적과 동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프라임엔 고급(Advanced)의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나중 것이 첫 번 것보다 낫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고쳤다면 그 시대엔 배 앓은 병같이 단순병이 다수였다면 지금은 예상치도 못하게 현대병이 다수인 실정이고, 또 베드로땐 불러 모은 성도 3,000명이며, 영산땐 70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때 베드로 땐 나라 부흥과 무관했었다면 영산땐 나라의 부흥도 함께 이뤘던 시대입니다. 해서 만약 $\alpha = f(\text{베드로의 성령세례})$ 이면, 베드로의 성령세례가 처음이어서 α 라하고 두번째로 나타난 영산의 성령세례엔 프라임을 하나 붙여야 합니다. 해서 나온 것이 프라임 성령세례, $\alpha' = f(\text{영산의 성령세례})$ 입니다.

그 유명한 해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장군의 선박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20척이나 잃었지만 이순신은 한 척도 잃지 않았다. 해서 무능한 상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전쟁에서 나랄 구하고 민초를 살렸던 해전은 무엇인가?란 질문의 대답은 첫번째 살라미스해전이 β 이고 두번째 2000년 뒤에 일어난 명량대전이 β' 가 됩니다. 다시보면 β' 가 더 고급(Advanced)한 것을 알 수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적용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베르로는 바로 불광동 천막속의 영산으로 귀결됩니다. 불광동천막속이 β' 이기 때문에 더 고급(Advanced)입니다. 여기에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 필자의 요지는 혹시라도 영산의 지금까지의 업적을 한치라도 폄하되는 일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테미스토틀레스의 업적을 더 높이고 이순신을 격하하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은 서양인의 업적이라서 동양의 영웅을 엽신 여기는 사대인 것입니다.

왜 한국인은 그리도 종교적인가? 한국인의 DNA가 다른가?

“애통하는자는 복이 있나니”란 성경말씀이 있듯이 한인들의 그 독특한 종교성은 DNA 안에 각인된 "한"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병리학자들은 쥐를 놓고 비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비만은 다음 세대의 쥐로 유전되었으며 쥐 안에 비만 DNA란 인자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비만한 쥐의 다음 세대는 비만해진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만은 유전된다는 이론이고 비만 유전자가 차세대를 제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만이 원인은 지방입니다. 비만인 쥐는 지방이 있는 환경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지방이 있는 환경에 빨리 익숙해 있었으며, 그다음에도 지방 섭취를 위해서 살찐 환경을 반복적으로 빨리 찾아냅니다. 즉 비만 - 환경 - 지방이란 세 개는 DNA 인자 형성 요소(element)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두움과 고초가 유독 많았던 한국 민족은 고난 - 감정 - 한이란 세 개의 DNA 인자 형성 요소(element)가 됩니다. “한”은 유전인자로 세컨더리²⁵(secondary)유전을 합니다.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서주²⁶”란 열 댓 살 난 중학생의 노렐 들어 보았습니까? 이 어린앤 마치 적장을 끌어안고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논개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 꼬마 여학생의 노렐 듣고 있으면 그 어린 여학생 속에서 그런 한이 울

²⁵ 2차

²⁶ 중학생의 어린 나이에 활동 중인 여성 가수로서 주된 장르는 트로트이며 발라드와 팝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노래하고 있다. 데뷔 전부터 유튜브 채널 '트로트 셋별 정서주'에 업로드한 노래 커버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려 나오고 있음을 금방 알아 챌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노렐 듣는 대중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련한 목소리에 열광합니다. 왜? BTS가 세상에 유명해지는가?란 질문도 여기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잘만하는 음악과 이런 한이 있는 음악은 분명히 사람들의 울림판이 달리 공명시킵니다. 결론은 이런 K-pop에 한이란 유전자 없었다면 세상사람들이 이 정도로 K-pop을 좋아할 수 없었을 것이라 미루어 추론합니다. 이렇게 유전 인자인 "한"은 사람의 울림판을 흑~ 파고들어와, 오그라뜨리고, 아리아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을 하면 아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불교 신도들도 미국 가면 기독교인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한인들의 교회 활동은 가히 대단합니다. 필자가 그 동안 지켜본 한인들의 근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분들은 따로 취미활동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늘 교회생활을 했고, 언제나 한결같이 교회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자들중도 한인만 유독 신앙적인가?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또한 이 질문에 “한”이란걸 적용해 볼까합니다. 미국 생활 몇십 년 동안 유별란 한인들의 신앙생활을 목도해 왔고, 이미 서술한 것처럼 필자가 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길 열댓 시간 타고 와서 한국의 종교양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본 광경입니다; 교회주변에 -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장충교회 - 상가는 비즈니가 안돼서 새 임차인을 구한다는 서너 개의 싸인 판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그 뒤에 아주 커다란 현수막까지 쳐 놓았습니다. 이렇게 빈 상점이 주변에 짝 널려 있을지언정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 건물인 장충교회는 여전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선 찾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에 이다지도 한국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리 열성적인가? 그 결론은 “우린 그 어려운 고초로 스쳐 지나가면서 생성된 그 상흔, 즉 한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한이 자연스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도 연약하고 낙심될었을때 하나님을 수시로 부를 수 있었기에, 흑여 다시 울지 모르는 공포 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견딜 버팀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일제 강점기든 육이오든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천여 번의 왜침이 있었다는 한반도에서 필할 수 없었던 왜침속에 살아야했던 조상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고난을 겪어 왔으며, 아직 지금도 깡패국가의 사정거리안에 핵무기로 적화를 외치는 김정은 정권의 두려움까지 -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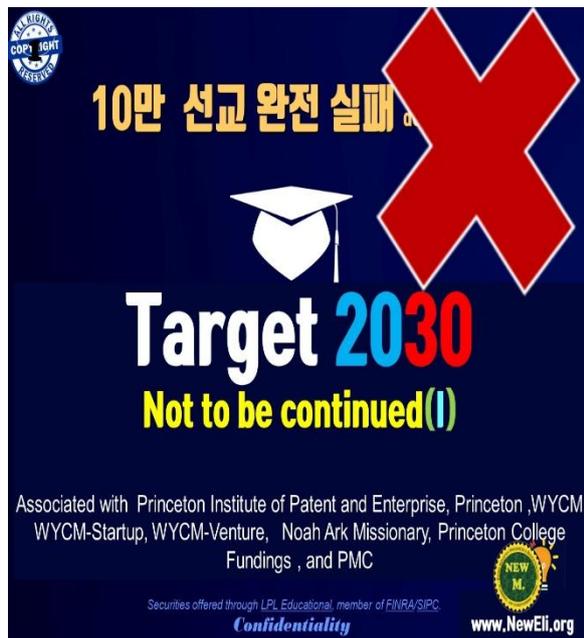
즉 세대를 걸쳐서 이미 공포와 불확실에 대한 대처 기제가 DNA 안에 각인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알 파치노가 주연했던 유명 영화, “스칼페이스”처럼 얼굴이 아닌 마음에 깊은 상흔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DNA가 있는 한국 사람은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반응으로 심성을 보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인의 유별한 “신앙생활”이고 “빨리 빨리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은 “눈으로 보고 믿지 않고 귀를 더 신뢰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찰라의 정보로 남보다 더 빠르게 처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안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예로 대한민국에서 억수로 돈이 많은 제 누이가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면서 핵을 어찌구 저찌구 할 때였습니다. 필자가 국제 통화를 하면서 수틀리면 “내 집에 비여있는 방(미국에 있는 방)을 준비했으니 거기서 같이 살자”라는 농담에 누이가 안심을 하는 걸보고 필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겐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걸 고대로 응용해보자면 밖의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나의 불안을 아시고 날 감싸 주신다”고 믿기에 마치 다윗처럼 움츠린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방어기제로 의지하였듯이 한국인 DNA에 동일하게 맞닿았다²⁷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바로 유크나이나가 러시아 푸틴에게 침략당했다는 뉴스를 접해 들었던 그날 제가 살던 뉴저지 프린스톤이란 동네에서 마을 축제를 했었던 날이었습니다. 때 마침 그들은 그런 뉴스를 듣고나서도, 여전히 마시던 걸 마셨고, 말은 안됐지만 전쟁이야기는 바다 넘어 딴 나라 이야기 였으며, 그들이 추던 춤을, 하루 아침에 참담히 폐허된 우크라이나 한 도시의 사건과 완전 무관하게, 추기 시작 했습니다. 이웃인 친구 짐(Jim)은 축제후에 양키스타둡 경기를 보러 가자고 공짜 티켓까지 가지고 와서 필자를 설득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게 야구 프레오프까지 보고 돌아오면서 머리 속에서 이런 저런 생각이 지나 갔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한을 설명할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참고로 필자가 미국학교다닐 때 미국인들에게 제일 힘든 단어가 한국인의“한”과 남자끼리 하는 “우정”이었습니다.

²⁷ 여기서 반발짝만 더 갔다 돌아오자. 만약 “한”이 동일하게 북한사람들에 적용된다면 남과북이 통일되는 시간부터 한국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나팔위해서 세계 방방 곡곡에 커다란 사역을 할 것이다. 굶주리는 북한을 보며서 안타까위는 했지만 그 어려움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 알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사역의 마지막장을 잠깐 엿 보는 기분도 들었다.

새시대 새목회 새선교의 목표와 교회의 목적은?

다음으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무얼 기대해야 하는지? 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이렇다”라고 선뜻 단정 지을 수가 없겠지만 필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동시대에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첨부해야 할 것이 대형교회 지도자의 영적 안목 때문에 그런 초초함속에서도 함께했던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같이 받았음도 인정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앞으로 올 축복을 끊임없이 기도 하고 앞으로 씬 없이 앞으로 나가는 자들과 함께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뒤로 처지는 성도는 뒤에 남기고 가기도 했지만 성공치 못한 성도는 자진해서 말없이 전면 (Front Line)에서 사라져 주었습니다. 체면 중시 문화였고 또한 교회가 실패자들이 따로 있을 자리조차 차마 마련치 못했던 시대 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커지길 마치 마 사회 경주하듯 하였으며 교회 외형은 그 부산물로 엄청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교회든

Figure 11) 대한 선교회가 2030년까지 10만의 선교사 파송하겠다는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음

간에 신자 수가 좀 돼 보이면, 누가 되었던 지 외형적인 교회 건물을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는 많은 부를 계속 키워갔습니다.

백 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커다란 발전을 했고 한국의 밖에서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공을 앞당긴 부실 공사와 같이 상당한 정비가 시급함입니다. 세대교체를 한 대형교회들이 1세와 2세 목사들의 견해차도 문제지만 이것은 개별적이어서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가장 심각한 것이 1세대와 2세대그리고 2세대와 3세대의 목사남들의 선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한국 교단 전체가 선교사 사역의 한계에 부딪친걸 풀지 못하고 있고, 더 문젠 풀려는 절실함도 없어 보입니다. 너무 부해졌고 편안해졌으며 대형이 된자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하고 있고, 혹여 그나마 대형을 받아 누린 자는 더 큰 대형답게 키우겠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인간적 욕심만 보입니다. 이젠 교회 제도가 부적절해짐을 의미하며, 목회가 사람에게 의해 인정받으려는 목회로 전환했음의 신호이고, 더 나아가 이것을 이룬 목회이후에 발생한 나태함, 그러면서 생계형 목회로 전락했음의 부패의 신호입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이에 따라 커다란 문제가 앞으로 한국 교회사에 발생할 것인데, 필자는 이게 온다는 감보다 이미 와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어찌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 뉴스가 하나 있다면 그건 뉴엠, 새 사명자운동입니다. 꼬인 매듭을 한국 교단은 못 풀어도, 뉴엠의 절대 희망신학이라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다시 영을 오케스트해야 했나?

필자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짜 짠 반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영을 오케스트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 생각만 말고, 이젠 말로 “나도 할 수 있으니, 나도 절대 희망을 품어도 되는 귀한 존재이고, 당장 나도 세상을 설계해도 하나님이 축복해주신다.라고 영산이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도 주인행세 좀 하자”라고 해야하고, 이젠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자”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노예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 사람들을 출애굽기 시켜야 하고 영산의 절대 희망과 영산의 삶의자리가 같길 잃은 민초에게 젓과 꿀이 흐른 가나안땅이란 새 방향을 제시했듯이 이젠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것도 없었던 민초들이 삶의 터전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결국 새영 운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식이 바뀌진다는걸 알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잠자는 민초를 들쳐 깨워서 뭐라도 해야 하는 때임을 의식하고, 마침내 민중이 들쭉거리게 영적 메시지를 민초들에게 던져야합니다. 이젠 한국이 아니라면 외국에 말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 70만의 성도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로 단단히 묶어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뭐든지 하루만에 생긴것이 아니듯이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곳, 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루아침에 생긴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민초와 함께 했던 간단한 법칙은 시대가 바뀌어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했던 영산의 신학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Event)을 반복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북한선교과 동키공동체는?

어느날 전화가 왔습니다 사촌형이 미국에서 못 먹어 봤을 거라며 강남에 어느 추어탕집에서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40년전에 필자가 떠날때 참 가난하게 살았던 사촌 형이 뭘했든지 억 소리 나는 부자가 되어 있었고 꽤 돈있는 자들이 운전하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나온 걸로 미루어 사는게 꽤 괜찮은 것 처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중에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그 형네 집안도 제일 큰 형이 이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난 재산을 좀 떼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나의 큰형(이북에 혼자 떨어져 사는 사촌형의 유일한 피붙이)에게 아니면 큰형의 가족에게 주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는자가 “북한에 참 할 일이 많구나”라고 생각했고 이런 종류가 이남에 내려와 잘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좀 북한사역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전에 설명했듯이 “한”은 “애 통한 자”와 연결이되고 그 애통한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시오. 해서 애통한 그들 즉 북한사람들은 복음을 스폰지처럼 흡수할 것입니다. 이를 북한사역에 좀 더 적용된다면 남과북이 통일되는 시간부터 한국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나랏위해서 세계 방방 곡곡에 커다란 사역을 할 거란 필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어가던 북한주민을 보며 안타까워도 했지만 그 어려움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기에 다음의 결과가 올거란 예측을 해봅니다; 이씨 조선이 500년의 왕권을 유지할 수있었던 것은 계층이 5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즉 계급이 사농공상 그리고 맨위엔 왕이 있었습니다. 한계층이 그 다음계층을 뚫고 올라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혹여 올라간다하더라도 밑의 층이 잡아 끌어내리기때문에 더이상 위로 올라가는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북한도 5단계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급이 군무위원장, 백두혈통,기본군중, 복잡한 군중,적대계급잔여분자입니다. 이 마지막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이남에 가족 있던지 아님 육이오때 인민군에 반대했던지 어찌든지간에 북한 정권에서 제일 쫓겨려운 집단이 바로 적대계급잔여분자입니다. 해서 이들은 북한체제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심한 제재를 받는 집단이 되었고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피박받은 계층입니다. 해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시에 최대 피해층이기도 했었습니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이 계층을 반드시 높혀 쓰실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남자 평균 수명이 28세였던, 찌지리도 못 살았던 조선 말기 그리고 곧 이어 일제 강점기 36년 또 그 위에 설상가상의 육이오 그리고 또 계속되는 김일성체제의 피박은 근 1세기 동안 쉬지않는 피박과 곤난속에서 살아 남은 자들에게 대한민국에 가장 강인한 DNA를 주셨고 그들의 DNA안에 애통한 한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초로 받아 거듭날 자들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믿는자의 풀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글에 초기에 돈키공동체와 전문선교사 그리고 새 사명자를 설명했었습니다. 이들 북한의 풀뿌리를 지원할 돈키공동체는 통일전까지 외국에서 자생하며 제3국, 해외 돈키공동체로 세계 자유경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맘껏 키워 나갈 것입니다. 허나 통일이 되는 바로 순간엔 이 공동체는 미리 지정된 북한지역에 자기와 동일한 돈키 공동체를 형성할 것 입니다. 누구랑? 바로 제일 피박받은 그 5번째 적대계급잔여분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을 크론(Clone)화하다고 합니다. 북한내에서 이 풀뿌리 사역을 통하여 북한을 성령으로 초 긴급적으로 초토화해 나갈 것이고 복음을 급속히 빨아들인 훈련된 자들을 다시 세계를 향해서 나선적으로 해외 기존 기지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을 땅끝사역의 마지막 까지 밝힐 수고를 아끼지 않을 믿는 자로 양성될 것입니다.

새 시대에서 필자의 바람?

필자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이 글에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사행 27:23-24에 배가 폭풍을 만나서 있던 물건도 배 밖으로 버리고 있을 때 바울이 “내가 반드시 로마황제 앞에 선다”며 천사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미친듯한 광풍에도 너희들을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설득합니다. 결국 바울과 같이 탔던 275명의 목숨도 부지했고, 바울은 로마로 안전하게 입성했습니다. 이 입성때문에 로마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유럽 복음화로 퍼져나갔음을 의심할 수 없지만 혹, 만약, 바로 그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란 상상을 잠시라도 했었다면 지금으로선 아예 말도 안 되는 가정일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로마의 입성 없이 지금의 기독교는 없음을 우린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필자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트랙 안에 있는 선교사역은 꼭 이루심을 필자는 믿습니다. 해서 이 글을 쓰는 필자에게도 아주 강



한 바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이 있었다면 “지금은 새 사명자로 반드시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인을 사용하여 세계 복음화를 일으킨다”라는 믿음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유리클라란 광풍속에서도 바울을 건지셨으니 분명히 갈 길 잃은 광풍의 한국 교회 중에 뉴엠, 새 사명자를 건져서 - 그뻔 바울 훌훌로 단신이였다면 지금은 수십 혹은 수백 아니 수천이 - 세계의 복음화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Figure 12) 미래의 선교는 전문선교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림

그리하셔서 로마를 통해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국인을 통해

서 받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하여 앞으로 이 글을 읽은 모든 분은 뉴엠, 새사명자 운동(New Elisha's World Movement)을 위해서 기도도 부탁드리고 또 뉴엠, 새 사명자운동을 돕는자가 당신이길 바라는 바램도 함께 해봅니다. 허나 하나더 앞전에 설명 들었던 α , α' , α'' 를 기억하실겁니다. 여기 α 가 필자가 설명한 “뉴엠, 새 시명자 미션”이라 면 누구간 이미 다른 모양새로 사역하는 분들이 α' 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그룹이 α'' , 또 다른 기관이나 교계가 α''' 로 더 고급(Advanced) 사역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 모두가 같은 예수의 깃발아래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는 젊은 지도자를 만들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의 코레버레이션(Collaboration)이 필수 일겁니다. 해서 앞으로 사명을 지고 갈 젊은이들을 위한 효율과 효능(Efficiency and Effectiveness)적인 단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새 사명자란 한 네트워크에 가입하시여 서로간에 좋은 영향을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만약 뉴엠, 새 사명자에 관해서 더 궁금하시면 아래 연락처를 남겨놓았듯이 연락주시면 추가의 질문에 최선의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서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시길...



날짜; 2023년 11월 20일

Date updated on 03-19-2024

새 사역자 운동, 뉴엠 지도 본부 총협회 회장

박 찬훈, John H. Parker

폰 010-5954-2030, 미국폰 609-751-2030 이메일 104koreans@gmail.com 웹 사이트 www.neweli.org